

전주 남부시장, 백년시장 육성 탄력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27년까지 3년간 최대 40억원 지원

전주 남부시장이 대한민국 전통시장의 혁신모델이 될 백년시장으로 육성된다.

전주시는 전주 남부시장(회장 오귀성)이 올해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미래형 상권으로 도약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시장 육성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남부시장은 △시장 고유 브랜드가치 △상인회 추진 의지 △기존 관광 콘텐츠를 통한 문화·관광 연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원남문시장(연합)과 함께 최종 2개 시장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행정지원과 더불어, 김문덕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치권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남부시장 상인회와 로컬컬리에이터의 우수한 사업계획 준비 등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이뤄낸 성과다.

전주 남부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국비·지방비 포함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으로서 향후 백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전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주 남부시장이 대한민국 전통시장의 혁신모델이 될 백년시장으로 육성된다.

이에 따라 전주 남부시장은 ‘전주 남부시장의 K-일상, 퍼펙트 데이즈’를 비전으로 연차별 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의 일상생활 핵심거점이자 지역 농수산물 등 로컬 재료를 기반으로 한 유통의 중심지로 새벽시장부터 야시장까지 다양한 시간 및 공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일상의 모습을 구현하게 된다.

전주의 가장 일상적인 생활 문화(식재료, 먹거리, 장보기, 아시장, 청년가게 등)를 세게인이 경험할 수 있는 전형적인 모델로 만들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가장 평범한 한국의 일상이 세계적 글로벌 모델로 발돋움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백년점포 경

영과 일상 기반 로컬브랜드 확산을 위한 남부시장 백년시장 사업은 총 3단계로 실행될 예정이다.

먼저 1차년도인 올해부터 내년까지 스토리텔링 중심의 K-일상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사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청년들과 야시장에 형성된 청년 상인들과 식재료 판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노년층 상인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남부시장에는 시장상인 간담회와 전문가 교육, 갈등조정위원회의 가동 등 세대 공존 협력체계가 마련된다.

스마트 결제 및 안내 시스템 등 생생한 인프라 개선과 다국어 표지판 제작 등도 추진된다.

이어 사업 2차년도인 2026년은 K-일상 상생모델 정착 및 창업 브랜딩 실험을 확대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빈 점포 리모델링 후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거나 남부시장의 다양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메뉴 및 상품 개발이 진행된다.

올해 개관 예정인 모이장 등 남부시장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로컬컬리에이터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와 관광이 융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집중한다.

3차년도(2027년)에는 ‘글로벌 K-일상 브랜드 확립’을 목표로 1~2차년도의 인프라 구축과 브랜드 실험을 기반으로 남부시장 고유의 K-일상 브랜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을 통해 개발된 메뉴를 상품화하고, 그 과정에서 남부시장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교류 사업도 추진된다.

오귀성 전주남부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노력해 준 전주시와 지역정치권, 상인분들 등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부시장 상인 모두 하나가 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남부시장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해온 상인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한옥마을을 비롯한 주변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요 거점으로 남부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관광 지역발전포럼 12일 개최

시민·전문가·관광업계 의견 수렴…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전주시는 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용선중)과 함께 출범 첫해를 맞아 전주 관광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를 공유하기 위한 ‘전주관광 지역발전포럼’을 12일 전주대학교 운누리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주관광 미래전략 2025-2030’ 초안이 처음으로 공개되며, 시민·전문가·관광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전략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략 초안은 확정안이 아닌 ‘전략 설계의 기초 틀’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전략 수립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재단이 지역과 함께 관광정책을 실행하는 관광마케팅전담기관(IMO)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략은 △전주 관광콘텐츠·특화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전략 고도화 △MICE·품격 관광도시 실현

의 세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전주시는 전주관광재단과 함께 전주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주시 유관부서, 출연 기관·관광전문가, 관광업계가 참여하는 ‘외래관광객 유치 TF팀’을 구성해 △관광수요트렌드 분석 △전주 관광 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쇼핑·식음·숙박업체·OTA 협업 확대 △현장 중심의 관광 수요·불편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TF팀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며 유치 전략을 현실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관광·정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주 관광의 현황과 과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제안한다.

김현환 前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아 전주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전주시는 1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제81차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에 의해 구성된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전주시 의원과 전주시 소속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진재경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신규위원으로 위촉된 김원수 위원(법무법인 윤골음 대표변호사)과 서규복 위원(전주인후초등학교 교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재산등록(변동) 신고사항 심사(안)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사항 반영(안)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결과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결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운영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보존지청 인근 공영주차장 2급지 요금 적용

전주시설공단은 보존지청 인근 공영주차장은 2급지 요금이 적용돼 30분 기본 요금 700원에 15분당 350원이 추가되고 하루 최대 7000원이 부과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월정기권을 운영하며 롯데마트 인근은 7면, 보존지청 인근은 6면을 월정기권 주차구역으로 배정했다.

1급지는 월 9만 원, 2급지는 월 6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운데 이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인근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할인권도 판매하며 기존 요금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상가 이용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뉴질랜드 쿠뮤 필름 스튜디오와 전주 투자 계획 논의

세계적 영화촬영소… 피터 유 대표, 전주 방문해 우범기 시장과 논의

전주시가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뮤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s)와 함께 영화·영상 산업 발전과 전주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10일 피터 유 쿠뮤 필름 스튜디오 대표가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뮤 필름 스튜디오가 전주에 안착하고 아시아 제2 스튜디오를 전주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부지 문제, 행정적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쿠뮤 필름 스튜디오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서부에 위치한 대규모 영화 제

작 시설로, 약 27만1074㎡(8만2000평)의 면적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영화 촬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촬영지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러한 쿠뮤 필름 스튜디오와 지난 2024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투자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전주시에 쿠뮤 필름스튜디오 제2 스튜디오를 건립하고 관련 업체(음향, 조명, 소품 등) 전주 유치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쿠뮤 필름스튜디오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주시에 한국법인인을 개소하기도 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10월 영화·영상 산업 비전을 발표하고, 쿠뮤 필름스튜디오가 전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2

스튜디오 건립 부지 조성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 개선, 영화·영상산업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영화영상산업을 전주시 미래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정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시는 전주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쿠뮤 필름스튜디오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쿠뮤 필름스튜디오가 전주에 안착하는 데 필요한 세세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부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피터 유 쿠뮤 필름스튜디오 대표는 “전주시는 영화·영상산업을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미래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고, 초기 논의 단계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협력 계획을 제시하며 영화·영상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보여줬다”면서 “쿠뮤 필름스튜디오는 전주시가 보여준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신뢰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쿠뮤 필름스튜디오가 전주에 20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쿠뮤 필름스튜디오 제2 스튜디오 전주 건립은 전주가 영화·영상산업 도시로 성장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쿠뮤 필름스튜디오와 더욱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제2 스튜디오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